

제 12 회 중국 성균 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1-CNS0705

한글 성명: 김혜진

젊음은 빛지다
 나는 홀로 거니는 것을 좋아한다.
 쉬 없이 달리던 일상엔 잠시 내려놓고
 행여나 놓쳐버렸을 수도 있는 소중한
 무언가를 다시금 돌이켜볼 수 있는 시
 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.
 어느 화창한 봄날, 거리에는 수많은
 사람들로 북적거렸다. 그때, 유달리 내
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다. 언뜻 보기에 또
 스물두셋 정도 돼 보이는 남자가 등에
 큰 가방을 메고 유모차를 끌고 가고
 있었다. 평소 같으면 별생각 없이 지나
 쳤을 수도 있었겠지만 나도 그 나이대
 가 되어보니 많은 생각에 잠겼다.
 20대,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누구나
 누릴 수 있는 나이대는 아니다. 나처럼
 부모님의 뒷바라지 덕분에 감사히 공부
 할 수 있고 청춘을 즐길 수 있는 사
 람이 있는 반면 일찍 시집 장가가서
 자식을 위해 스스로의 젊음까지 다 바

총 3 장 중 1 번째 페이지

성균관대학교



扫描全能王 创建

제 12 회 중국 성균 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1- CNS0705

한글 성명: 김혜진

지고 한 평생 누침이 라는 것을 오르고
 지면 사람들 도 있다 . 가장 가까이에 서
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경작 그 사람
 에 대한 고마움은 표현 할 줄 모르는
 무뚝뚝한 딸임에도 한없이 사랑해 주시
 는 부모님들이 바로 자식들에게 ' 젊음
 을 빼앗긴 사람들 ' 이다 . 고로 우린 그
 들에게 젊음을 빛진 격이다 .
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젊음을 즐길
 겨를도 없이 시집 장가드는 게 보편적
 이긴 했다 . 그러나 세상만사 당연하다고
 치부될 수 있는 건 없다 . 그들이 스스
 로의 젊음 대신 나라를 생명체를 이
 세상에 바쳐 주셨다는 자체가 딸인 나
 로서는 나 스스로의 젊은 역량을 최대
 화시켜 그들에게 빛진 젊음까지 도로 되
 찾아 드리고 싶은 크나큰 동력이 된다 .
 내 나이 스물셋 , 한창 꽃다운 나이
 에 부모님께 빛졌다는 얘기를 하면 아
 마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못 받을지도

총 3 장 중 2 번째 페이지

성균관대학교



扫描全能王 创建

제 12 회 중 국 성균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1 - CNS0705 한글 성명: 김혜진

한글 성명: 김혜진

[illegible]